

다산포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하미마을의 눈물

습을 보아야 했다. 3월 16일, 팽응아이성 마리아마을에서 훨씬 더 큰 참극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미군들에게 적어도 347명, 많으면 504명이 희생되었다. 마리아의 비극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반전평화운동에 불을 지폈고, 베트남의 운명을 바꾸어버렸다.

이 비극을 겪은 이후 베트남인들은 유령처럼 떠도는 원혼을 위해 담 안팎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향을 피웠다. 기어츠상에 빛나는 인류학자 권현익교수가 언급했듯이 이곳은 절이나 부랑자, 심지어 적군일지도 모를 유령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나의 친인척 또한 잘 모셔야 할 것이라고 믿는 만큼 이들도 정성스럽게 피안의 공간을 마련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베트남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마리아학살의 진실을 기억하기 위한 역사관을 만들고, 미국 참전군인들과 시민단체가 이 마을에 많은 지원을 했다. 한국군에 의한 비극과 주민들의 고통은 뒤늦게 1999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고, 2001년 하미마을에 '월남참전전우복지회'의 지원으로 위령비가 세워졌다. 주민들은 전면에 희생자들의 명단을, 후면에 참상의 기록과 함께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새겼다. 그러나 학살이라는 표현 때문에 후면은 연꽃무늬 그림으로 덮였다. 풍나-풍넛의 위령비는 2004년 당산나무가 있는 피해의 현장에 한국의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세워졌다.

비극적 사건들이 발생한 지 55년이 지난 2023년의 봄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전향적 판단과 불변한 진실을 회파하는 관행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작년 2월 7일 서울지방법원은 '풍나-풍넛 학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베트남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그밖의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고 한국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5월 2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하미마을 유족들이 신청한 진실규명에 대하여 이 사건이 위원회의 조사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한국 사법부의 판결과 엇갈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은 한때 진실규명의 책임자로 일했던 나에게도 큰 부담이었다. 유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에게 작은 사과라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용기를 내서 현장을 찾았다. 풍나 위령비를 지키는 아우나무는 만시지탄이라며 일임거렸다. 하미에서는 유족 응우엔 럽을 만나 '올 봄에 저는 못가요'라는 노래를 들었다. 그의 어머니 팟티호아는 열 살 아들과 다섯 살 딸을 잃었고 자신도 두 발을 잃고 한국을 원망했지만, 10년전 "이제 그만 용서해"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지뢰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눈물이 내 가슴에 뜨겁게 흘러내렸다. 용서라는 말보다 더 큰 아픔은 아직도 한국인을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유족들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오늘날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고 가장 중요한 국제결혼 상대국으로 발전했지만, 유족들의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증오를 지우고 진정한 화해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좀더 멀리 보고 분발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했다. 이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서 작별인사를 했지만 나는 끝내 올해가 정몽의 해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잔인한 2월의 기억이 하미마을을 다시 한번 지나가고 있다.

社說

의료대란 1주일...최악의 사태만은 막아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1주일째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의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1주일째인 어제까지 전남대병원 본·본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319명 중 28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200명 이상이 출근하지 않거나 급한 업무만 처리하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42명 중 113명이 복귀 명령 불이행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들이 현장을 떠남에 따라 전임의 등을 중심으로 비상 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수술은 30%, 일반병실 가동률은 50% 가량 평소 대비 감소함에 따라 중증 질환자의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환자와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는 전남대와 조선대 병원 전문의들은 전공의들이 하던 수술 보조와 입

원환자 관리, 야간당직을 도맡고 있는 탓에 피로가 누적돼 '번 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임의들이 오는 3월 재임용을 앞두고 포기의사를 밝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의 대거 이탈이 현실화하면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는 등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환자를 지켜야 할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데도 본분을 망각한 행위지만 강경 일변도인 정부의 대응 기조도 의료대란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생존권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으로써 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한다. 국민 건강과 환자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해법의 지혜를 모색해야 한다. 의사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복귀해 병원을 정상화하고 정부와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짙은 겨울비에 농작물 피해 선제 대응 필요

올 겨울 유난히 짙은 비로 농작물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겨울 장마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비가 자주 내렸는데 2월 들어서도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연속 지속되기도 했다.

짙은 겨울비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일조량 감소다. 겨울철은 그렇지 않아도 해가 짧아 일조량이 부족한데 비까지 잦아 예년보다 많게는 일조량이 30% 이상 줄었다.

전남도가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영랑 등 전남 주요 5개 시·군의 월평균 일조시간은 평년(167시간)보다 22.7% 감소한 129시간이었다. 12월은 평년보다 33%나 감소해 104시간에 불과했다.

이렇다보니 멜론이나 딸기 등 겨울 하우스 재배 농작물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생육 부진과 열매 미 성숙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다. 국내 최대의 겨울 멜론 산지인 나주에선 생육기인 12월 일조량이 예

년보다 25% 줄어 특품 출하량이 전년에 비해 70%나 줄었다. 농민들은 멜론 농사 30년만에 이번 겨울처럼 일조량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라며 빗만 늘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파프리카와 애호박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일조량 감소에 따라 수확량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피해보다 난방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다.

올 겨울 짙은 비는 라니노 현상에 따른 것으로 기압골이 장기간 한반도 상공에 정체된 탓이다. 크게 보면 이상기후가 원인인데 이같은 이상기후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 피해 대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10여년 전 일조 피해를 재대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 전남도가 정부에 피해 조사와 함께 농작물 재해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갈수록 잦아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증가를 감안할 때 하루라도 빨리 농작물 재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기고



명현관
해남군수

산불 대형화 추세, '예방'이 최선

소에 한정되지 않는다. 나들이가 잦아지는 봄철은 여전히 산불이 많이 일어나지만 국내외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산불이 점차 대형화, 동시 다발화하는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산림청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 또한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군과 읍면 공무원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매일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55명을 관내 14개 읍면에 배치해 불법소각 단속, 계도 활동, 캠페인 전개 등 산불 원인·시기별 맞춤형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산불조심이야말로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격언이 가장 들어맞는 말이다. 산불조심은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아무리 군과 읍면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들어도 '자 나까나 산불 조심'의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생활 속 산불 조심을 함께 실천하지 않으면 산불을 예방할 수 없다. 산불 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 예방이 어렵다는 뜻이다.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71%는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입산차 실화, 불씨 취급 부주의다. 누구나 알고 있

는 어렵지 않은 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음 사항만 준수해도 산불은 발생하지 않을 일이다.

첫째,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는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는 위법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지 않아야하며 혹시 입산했거나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인화물질이나 화기를 소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셋째, 산림 인접지에서 흡연이나 담배꽂초 투기를 해서도 안 된다.

산불 대응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최선책은 무엇보다도 '예방'이다. 산불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대비하고 염려했던 '산불 예방'이라는 백약은 무효해진다.

갈수록 심각화가 심해지는 몽골·중국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와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차단, 맑은 공기의 공급, 국민들의 심신 안정 등 숲이 가지는 유무형의 공익적 가치는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불 예방 실천, 이젠 온 국민이 동참하고 실천할 때이다.

청춘 특·특



정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1년

관심의 역설

는 없지만 그때 그 마음을 가졌던 진실한 내 마음은 어땠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순수한 의도의 사랑스러운 관심이었는지, 혹은 당장 다친 현실이 바빠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면서도 고개 돌리기 바빠 무관심을 척했는지.

우리 종종 눈부신 플래시 속에 살다 떠난 이들의 뉴스를 들곤 한다. 그러나 다음 뉴스로 고속사관 주제가 나와도 잠시 안타까울 뿐, 이상해하지 않는다. 무관심 속에 쓸쓸히 죽어간 이와 쏟아지는 관심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이가 공존하는 사회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곧 무관심했던 이들을 육하고, 한편으로 관심 두던 이들을 육한다. 그러나 이 역시 무엇이 틀렸다고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말하자면 나는 우리가 그 간극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 서로 간의 적당함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남에게 주는 것은 물론 나에게 오는 것까지도 말이다. 관심과 무관심 둘 다 처음엔 고통이나 별생각 들지 않지만 과열되기 시작하면 부담스럽고 서운하다. 더 나아가 서로가 미워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그전에 우리 서로가 너무 멀고 가깝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는 사람은 언제나 받는 이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특히나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일에 일방이란 없기에 더욱더 섬세해야 한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놀다 넘어져 생긴 작은 상처를 자꾸만 손으로 견줄곤 했다.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놀러 나간 놀이터에서 눈물을 찼듯한 기억이 있다. 이미 시늉도 더 지난 상처기에 전혀 아프진 않지만 아직도 내 무릎에 남아있는 흉터를 보면 그때의 서러웠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는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로이다. 작은 상처라도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면 결국 흉이 진다. 그리고 그 흉은 잊을만하면 나타나 또다시 나를 아프게 한다.

관심과 무관심의 공존이 모순적으로 느껴지지만, 서로에게 데었다더라도 약간의 틈이 있다면 금방 회복해낼 수 있다. 때로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바라보아야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도 너무 가까이 있을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흉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적당한 틈을 유연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할 뿐이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 마련이다. '처음과 같기'라는 말을 수백 번 되뇌이지만, 마음 또한 다르지 않기에 처음과 같기란 쉽지 않다. 누군가는 다다익선 이 아니겠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도가 지나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지치고 만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시대가 아닐까. 양극화의 과열이 뜨거운 우리 사회에서 또 한번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지금이다.

無等鼓

사과 값이 급등했다. 설 전만 해도 한 개에 1만원짜리 사과가 나왔다는 보도도 접했다. 26일 국가·도시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서울의 사과 가격은 1kg에 9044원으로 전세계 90여개 국가 중 가장 비쌌다. 2년 전 국가 부도를 선언하면서 물가가 폭등한 스리랑카(8296원)보다 비쌌다. kg당 바나나(4624원), 오렌지(7618원), 감자(5248원)도 우리나라가 가장 비쌌고 토마토(7166원)와 양파(3927원)는 2위로 세계 최고 수준

(sticker)를 보고 받는 충격(shock)을 뜻한다.

현 정부 들어 소비자물가지수가 급등해 2022년엔 전년 동월 대비 5.1%, 2023년엔 3.6% 올랐다. 먹을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고 지갑을 몇 번 만지작거리는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생활품이 사치품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빵 서기관', '우유 사무관' 등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면서까지 물가 잡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게 외灘

스티커 쇼크

이었던다. 고물가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고 '민생' 협안 집중 등

확인된다. 지난날 기준 과일은 전년도 같은 달에 견줘 28.1%가 급등했다. 채소 가격은 1년 전보다 8.8%, 곡물 가격은 9.2%가 뛰었다. 외식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3% 올랐다. 이러니 식량 찾기가 무섭다. 소주 한 병에 7000원, 맥주 한 병에 8000원을 받는 식당도 나왔다.

을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 방문을 취소하는 등 곳곳에서 '민생'이라는 말이 흘러넘치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다산 정약옹은 식위정수(食爲政首)라고 했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이 정치의 으뜸'이라는 얘기다. '민생'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세계)이 중요한 이유다.

놀랄만한 가격에 이른바 '스티커 쇼크' (sticker shock)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스티커 쇼크는 소비자가 비싼 가격표

를 받는 식당도 나왔다. 놀랄만한 가격에 이른바 '스티커 쇼크' (sticker shock)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스티커 쇼크는 소비자가 비싼 가격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곡 (구속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